

추석 전 햅쌀 가격 폭락...벼랑 끝 농심 '나락'

지난해보다 20% 이상 하락...만생종 햅쌀값은 더 떨어질 듯
전남 쌀 재고량 전년대비 191% 많아...강력한 시장 격리 시급

결국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올 추석을 앞두고 갓 출하된 햅쌀(조생종)이 전년도에 견줘 20% 이상 '폭락'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서다. 통상 추석 전 이른바 '상차림용'으로 출하되는 조생종 햅쌀의 경우 공급량이 적어, 추석 이후 수확·출하할 중만생종 햅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 햅쌀 가격 '급락'도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출하된 조생종 햅쌀 가격은 20kg 기준 4만3000원~4만5000원(도매가격) 선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출하된 햅쌀(5만6000원~5만8000원)보다 1만3000원(23.2%)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RPC 등이 농가로부터 사들인 조생종 벼(40kg 조곡) 구입가격도 5만1000원~5만3000원으로 책정돼 전년도 조생종 벼 구입가격(6만8000원~7만원)에 견줘 1만7000원(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수확한 조생종 벼(도정하기 전) 구입가격을 비롯, 도정해 도매상에 판매한 햅쌀 가격까지 모두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한 채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석 이후 본격화되는 중만생종 벼 구입·판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통상 '추석 상차림용'으로 출하되는 조생종 햅쌀의 경우 공급량이 적어 추석 이후 수확해 내놓는 중만생종 햅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전년도 수확기(중만생종) 산지쌀값(햅쌀 20kg) 평균 가격은 5만3534원으로 같은 해 조생종 햅쌀 가격(5만6000원~5만8000원)보다 낮았다.

결국 국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도 전국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43만 t(7월 말 기준)이 넘는 재고 쌀을 방치할 경우, 햅쌀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는 농민들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량은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10만 t을 포함해 43만 t에 이른다. 전년도 같은 기간 쌀 재고량(전국 23만7000 t)보다 80.6%가 많다.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전년도 7월(3만5000 t)보다 무려 191.4%가 많이 남아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생종 벼 수매가격 하락→조생종 햅쌀 가격 하락→중만생종 수매가격 하락→중만생종 햅쌀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지만 정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37만 t을 격리한 점을 들어 미온적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도 등 농정당국은 쌀값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지난 2017년 이맘때의 경험을 살려 정부가 쌀 시장 격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농림부 장관이던 지난 2017년 9월 수확기를 앞두고 이뤄진 정부의 쌀 격리 조치로 13만2705원(80kg)이던 산지쌀값은 10월 15만1013원으로 상승했었다.

앞서, 전남 시장·군수들은 지난 30일 열린 민선 8기 첫 협의회를 통해 4차 쌀 시장격리를 시행할 것과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 쌀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 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쌀값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올해 첫 출하된 햅쌀의 가격이 20% 이상 폭락했다. 1일 광주 광산구 분량동 광주농협 통합 미곡처리장(RPC)에서 소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8월 무역적자 94억7천만달러...66년만에 최대

수출 6.6% 한 자릿수 증가 그쳐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8월 1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통계작성 후 66년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무역적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이어졌는데 이는 14년여 만에 처음이다.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지만,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566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6.6% 늘었고, 수입은 661억5000만 달러로 28.2%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또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는데 5개월 연속 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만이다.

수출은 기존 8월 최고 실적인 지난해 8월

(533억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웃돌아 8월 기준 역대 1위를 보였다. 이로써 수출은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8월 수출 증가율이 34.8%로 높은 기저효과가 작용해 올해 8월 증가율이 낮아진 면도 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 등 6대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석유제품·자동차·철강·이차전지 수출은 역대 8월 1위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이차전지는 역대 1위다. /연합뉴스

韓·日 양국 호감도 30%... '노노재팬' 이전 수준으로

동아시아연, 양 국민 2천명 조사

한국과 일본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노노재팬)이 일어나기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한국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 NPO'(言論NP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한국인 1028명, 일본인 1000명 등 총 2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을 향한 한국인의 긍정적인 인식은 지난해 20.5%에서 올해 30.6%로 상승했다. 본격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후 집계된 2020년 조사에서 12.3%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으나, 이제 불매운동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해 73.2%에서 올해 52.8%로 낮아졌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긍정적인 인식도 25.4%에서 30.4%로 올랐다. 반면에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해 48.8%에서 올해 40.3%로 낮아졌다. 이 또한 조사 첫해인 2013년(37.3%)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양국 간 호감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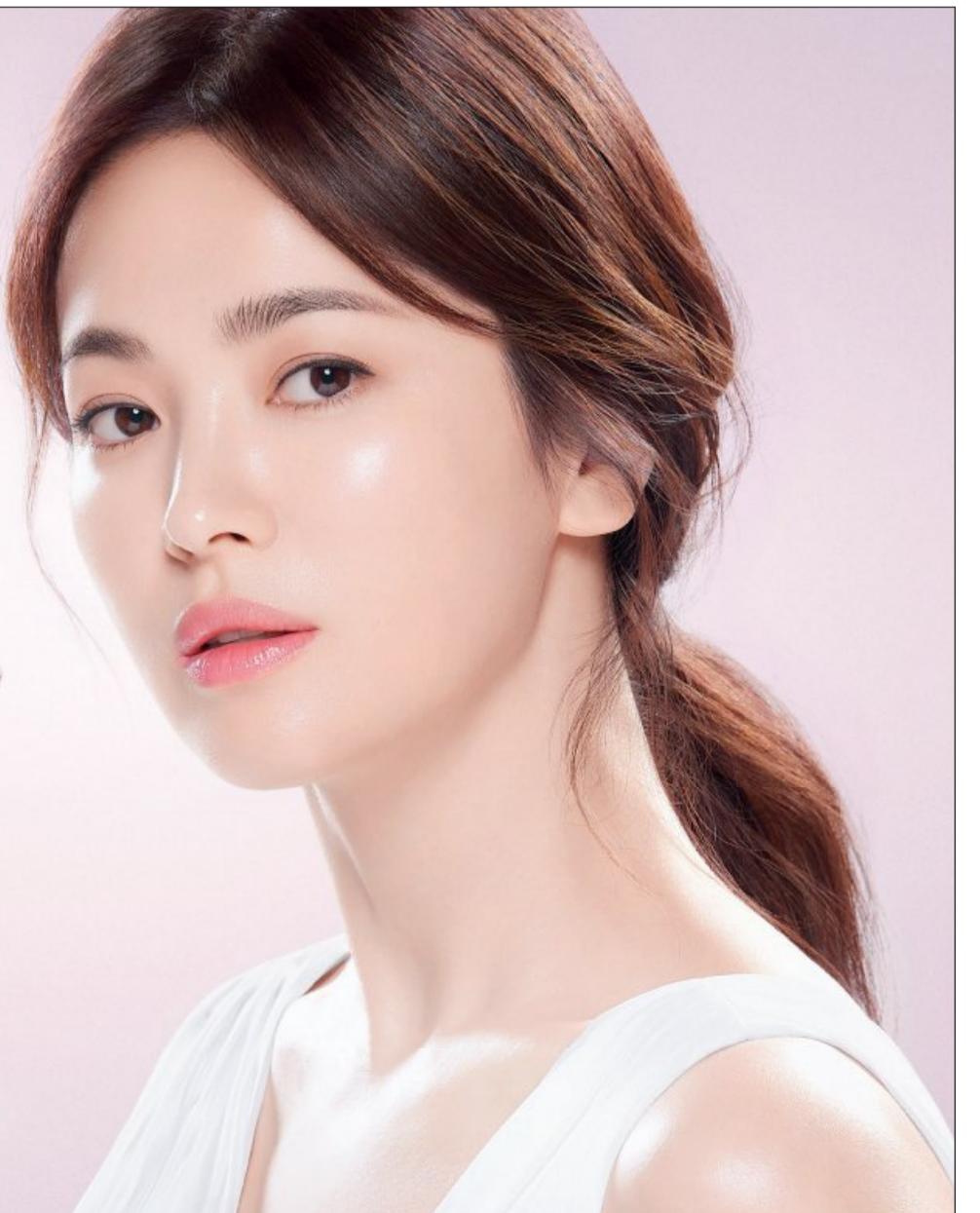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경, 광주에서 인쇄 시작

한국경제신문이 8월29일자부터 광주에서 인쇄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뉴스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